



백화점 성장세
대형마트 부진
소비 양극화 심화
L1

metro®

Life

패션업계
중고에 눈돌렸다
리커머스 부상
L2



작은 마을 품은 성처럼... 층층이 펼쳐지는 '초록의 풍경'

아파트의 미학(美學)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내려 버스로 5분가량 이동하자 역 주변의 분주한 풍경이 차츰 잦아들었다. 저층 주택과 골목이 이어지는 조용한 원도심 한가운데, 언덕을 따라 높이 솟은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다. 롯데건설이 시공해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청량리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조성됐다. 지하 6층~지상 1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61가구 규모로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했다.

단지가 들어선 청량리 일대는 정비사업을 거치며 노후 주거지에서 신축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로 변화하고 있다.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6'를 비롯해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 용두동 '용두 롯데캐슬 리치' 등 롯데캐슬 단지가 잇따라 들어섰다. 청량리8구역 재개발도 이주 마무리와 철거 단계에 접어들면서 브랜드 타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단지 인근 청량리역에서는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을 비롯해 KTX와 ITX를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 노선과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교육시설은 삼육초등학교와 청량중·고등학교가 있으며, 청량리역 주변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병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경사로를 따라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풍경을 만나게 되는 구조다. 공간이 층층이 조성된 모습은 작은 마을을 촘촘히 채운 '도심 속 성(城)'을 연상시킨다.

입주민을 맞이하는 문주는 상부를 깊숙이 파낸 입체적인 형태로, 단지 입구를 한층 웅장하게 만든다. 도로와 맞닿은 1층 조경은 단단한 회색 건축물에 산뜻한 첫인상을 더한다. 동사이 간격이 넓지는 않지만, 곳곳에 교목과 원뿔형 상록수, 낮은 관목을 심어 건물 사이 빈틈을 채웠다. 오밀조밀하게 연결된 마을을 둘러보는 듯 하다.

단지 중앙부에는 통유리로 둘러싼 티하우스가 자리한다. 내부는 세로로 긴 통창을 여러 면에 내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



청량리 재개발 761가구 신축단지 경사면 따라 자연·심·놀이로 채워 수목 촘촘히 심은 오밀조밀한 조경

단지중앙 정원 감상하는 티하우스 바위 사이 소나무 배치한 석가산 자연 담은 놀이터와 조형물 배치

오도록 했다. 청밖으로는 커뮤니티시설과 나무, 관목이 겹쳐 보여 실내에서도 정원을 가까이 누릴 수 있다.

티하우스 바로 앞에는 검은색 수로가 나선형으로 감긴 수경시설이 놓였다. 수로를 회색 자갈로 채우고 가장자리에는 흰색 자갈을 둘러 형태를 또렷하게 살렸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소용돌이를 떠올리며 조형적 재미를 더한다.

108동 옆에는 암석을 층층이 세운 석가산이 있다. 뾰족하게 솟은 바위 사이로 가지를 낮게 펼친 소나무를 심고, 아래는 키 작은 식물로 채웠다. 바위의 거친 질감과 단조로운 풍경이 조화를 이룬다. 한국 산수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곳이다.

꽃사과와 산수유 등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는 수목도 단지를 풍성하게 만든다. 꽃사과는 봄이면 흰색이나 연홍색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작은 열매를 맺는다. 산수유는 잎보다 먼저 노란 꽃을 피운 뒤

가을이면 붉은 열매로 색을 바꾼다. 사계절 푸른 상록수 사이에 꽃과 열매를 맺는 나무를 섞어 계절마다 달라지는 색을 더했다.

단지 한쪽의 휴게공간은 잘게 나눈 돌조각을 모자이크 처럼 붙여 벽면을 꾸몄다. 벽에 크게 낸 사각형 틈으로 주변 나무와 동네 풍경이 액자처럼 들어온다. 내부에는 흰색과 주황색의 작은 탁자와 의자를 놓아 야외에서 가볍게 캠프이나 소풍을 즐기는 듯한 분위기를 냈다.

어린이 놀이공간은 위치와 주제를 달리해 다양하게 구성했다. 대표적인 공간은 단지 가장자리의 경사면에 조성한 '숲속 산책길'이다. 나무 사이로 굽이진 오솔길을 표현했다.

놀이터는 위아래로 나뉜 지면을 계단과 오르막 놀이판, 연결통로, 원통형 미끄럼틀로 이었다.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야 오갈 수 있는 높이를 아이들은 놀이기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 '팔레트 블록' 놀이터는 빨간색과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을 입힌 블록 구조물이 특징이다. 사각형과 원, 아치 등 여러 도형을 쌓아 올렸다. 아이들의 다양한 꿈을 여러 색으로 표현한 공간이다.

조형물 '축제'는 붉은색과 푸른색, 황금색을 이용해 층층이 세 사람을 형상화했다. 일상에서 행복이 피어나는 순간이 축제이자 기쁨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의 조경은 한정된 부지를 층층이 나누고 그 안을 자연과 심, 놀이로 촘촘하게 채웠다. 언덕이라는 조건을 영리하게 활용해 단지 고유의 풍경을 만들어낸 점이 특징이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1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단지 중앙부 티하우스. 통유리 외관 주변을 교목과 상록수, 관목이 둘러싸고 있다.
2 티하우스 통창 너머로 보이는 원형 수경시설.
3 한국 산수의 절제된 아름다움이 담긴 석가산.
4 높낮이가 다른 수목을 배치한 단지 내 중앙정원.
5 단지 내 조형물 '축제'. 붉은색과 푸른색, 황금색의 인물 형상이 층층이 가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성채리 수습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최고 성적 노리는 한국 배드민턴...세계 최강 안세영, 2연패 겨냥
▲'음바페 해트트릭' 레알, 모리뉴 감독 홈 복귀전서 4-1 승리 /사진 뉴시스

▲'파리 동메달' 복싱 임애지, 훈련 중 부상으로 A G 출전 무산
▲손흥민 대체자 찾았나...사비우, 토트넘 데뷔전에서 1골 1도움

▲고우석, 트리플A서 3경기 만에 무실점...9회 등판해 1이닝 퍼펙트
▲'김상식 매직' 베트남, 태국 꺾고 '동남아 월드컵' 첫 2연패